



제주4·3중앙위원회는 20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30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덕수 총리 “제주4·3 해결 최선 노력”

4·3중앙위원회 22년만에 제주서 첫 회의 개최
심사 통해 희생자 88명·유족 4027명 추가 결정
오영훈 지사 “속도감 있게 희생자 명예 회복을”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중앙위원회)가 발족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정부가 제주4·3사건이 비극의 역사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해의 역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제주4·3중앙위원회는 20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30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제주 4·3중앙위원회 위원장)는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비극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제주의 완전한 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폈다.

한 총리는 “제주4·3위원회는 그간 일곱 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

족 신고를 접수해 현재까지 총 1만 4577명의 희생자와 8만 4506명의 유족을 확인했다”면서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내년 1월부터는 제8차 희생자·유족 신고를 받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뒤늦은 가족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바탕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면서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 정부는 여러분의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더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늘의 결정이 70여년 질곡의 세월을 견디어 오신 희생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의 삶에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민선8기

제주도정 역시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분들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4·3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이날 심사 결과 희생자 88명(사망 48, 행방불명 17, 후유장애자 17, 수형인 6), 유족 4027명이 최종 결정됐다.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 13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과 행방불명 희생자 42명에 대한 실종신고 청구는 원안 가결됐다.

회의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정부위원 7명은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태윤기자

행정시장 임용 절차 막바지 수순

제주시장 추가 공모 확인
다음주쯤 관련 절차 진행

민선8기 제주도정 전반기를 함께 할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장 개방형 직위 공모가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임용 관련 절차가 다음주쯤 본격 이뤄진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마감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개방형직위 선발을 위한 공개모집 결과 서귀포시장에는 5명이, 제주시장은 1명만 단독 응모했다.

제주시장의 경우 단수 응시로 응모 기한이 18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이후 추가 응모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22일 오전까지 우편 접수건까지 포함하면 응시자

는 더 늘 수도 있다.

제주시장에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관여했던 인물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귀포시장에는 정치인 등 다수가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22일 우편 접수건 등 서류전형에 마감, 후보자를 추린 뒤 25일에는 면접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오영훈 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 행정시장 임용 예정자를 지정한 뒤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으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양 행정시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 등을 고려하면 행정시장 임명은 내달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윤기자

송악산 5년·백악이 2년 더 ‘출입 금지’

도, 식생회복 지연 등 따라 자연휴식년제 연장

오름 훼손이 가중되면서 자연휴식년제가 시행중인 송악산과 백악이 오름 정상부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가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송악산 정상부 및 일부 탐방로와 백악이오름 정상부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대응읍에 위치한 송악산 정상부는 오는 2027년 7월 말까지 5년 간, 표선면에 위치한 백악이오름 정상부는 오는 2024년 7월 말까지 2년 간 각각 출입이 통제된다.

빠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송악산은 탐방객들로 인해 정상부 훼손이 가중되면서 지난 2015년 8월부터 정상 일부 탐방로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적용, 2020년 7월 말까지 출입제한에 들어갔다. 이후 2020년 8월 1일부터 1년 더 연장했으며 2021년 7월 말 다시 1년 더 휴식년

제를 실시했다.

이어 도는 지난 3-6월 송악산 출입제한 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정상 분화구 능선에 훼손된 송이송 식물 생태계 회복 등이 아직 더디다는 판단에 따라 제한 연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백악이오름 정상부는 최근 몇 년 새 탐방객들이 증가하면서 암반이 노출되는 등 훼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2020년 8월부터 출입이 제한됐다. 이번 자연휴식년제 연장으로 2024년 7월 말까지 정상부 출입은 불가능하다.

제주도는 훼손이 심각한 오름을 대상으로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송악산·백악이오름 이외에도 현재 제주시 조천읍 물밭오름을 비롯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 용눈이오름 등 4개 오름을 대상으로 휴식년제가 적용되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1202
잠정집계 20일 누적 25만2968
<17시 기준>

2022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국제트레킹 개최를 축하합니다

설치해 보세요!

각종행사장/개업식/집들이/야외휴게공간설치
주차장용/야외음식점 및 호텔 및 펜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각종 천막 탁자 의자 판매 임대
몽골천막, 자바라천막, 창고형천막

각종행사 단체식사 주문 환영
한식, 일식, 양식 등

종합이벤트

한라기획

(주)카리반 제주총판, (주)대원레저 제주총판
몽골천막, 자바라, 각종 행사천막 제작·판매·대여
각종 행사, 단체식사 주문환영(흑돼지바베큐전문)

대표 김 봉 근

- 사무실 : 744-6688 제주시 공방매길 116 (아라1동)
- FAX : 749-8668 • jejuhanla@daum.net
- H · P : 010-2623-6688